

화장지를 사려는 남성의 간절함



코로나19 사태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호주 슈퍼마켓에 간이 의자를 놓고 차를 마시며 화장지를 기다리는 남성이 모습이 생필품 사재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22일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대형 슈퍼마켓 콜스에서 촬영된 한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남성은 이날 화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렀지만 이미 동이 난 상태였다. 언제 화장지가 다시 들어 오느냐고 직원에게 물으니 조만간 다시 올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남성은 이날 3번이나 슈퍼마켓에 방문했지만 화장지 선반은 언제나 텅 빈 상태였다. 이에 이 남성은 아예 슈퍼마켓에서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집에서 간이 의자와 마실 차, 샌드위치, 그리고 읽을 책을 가지고 와서 슈퍼마켓 화장지 선반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이 남성이 이날 화장지를 구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로 전날에는 호주 채널9 뉴스의 저널리스트인 쉐 코스텔로가 그의 SNS에 텅 빈 통조림 코너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할머니의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은 데일리메일에 “할머니의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할머니 주소를 알려주면 생필품을 보내주고 싶다.”고 전했으며 한 한국인은 “우리는 충분한 생필품이 있으며 할머니 주소를 알려준다면 TNT 익스프레스로 생필품을 전하고 싶다.”고 알려 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사재기는 비호주적이며 바보스러운 행동이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재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사재기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손 소독제 1병 7달러, 2병은 160달러

덴마크의 한 슈퍼마켓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짝 아이디어를 공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2일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덴마크의 한 슈퍼마켓은 손 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지고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소독제 구매 개수 제한이 아닌 개수에 따른 가격 차이로 소비를 제한했다. 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손 소독제 1병의 가격은 40크로네(한화 약 7달러)지만, 2병을 구입할 경우 1,000크로네(약 16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형마트가 여러 개의 물건을 더욱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판매 방식이지만, 이 마트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뒤집는 과감함을 선택했다. 또 이러한 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해당 마트는 이러한 정책을 SNS에 알렸고, 소비자들은 동요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또 전 세계 다른 마트에도 같은 방식을 쓸 것을 권하기도 했다.



이 마트는 SNS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고객들은 입구에서 손을 씻거나 소독하고, 1가구당 한 사람만 나와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멋진 아이디어다. 다만 모든 마트가 이런 방침을 실시해야 사재기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러한 아이디어는 손 소독제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파스타 등 생활용품과 식료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등의 댓글로 응원했다.

27세 여성과 결혼한 103세 할아버지

인도네시아에서 103세 남성과 27세 여성의 결혼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도네시아 뉴스전문 채널 아이뉴스티비(iNEWS TV)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랑 푸양 까페(103·왼쪽)와 신부 인도 알랑(27·오른쪽)은 지난 2월 말 결혼식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 신랑은 10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측 친척들조차 그의 실제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언론의 취재 결과 그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참전용사로 현재 103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도 지인들은 “신부의 집에서 식을 올렸다.”면서 “결혼은 진짜”라고 증언했다.

소식을 접한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들은 이들의 결혼에 크게 충격받은 모양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이제 ‘아내가 임신 중’라고 얘기하면 더 놀랄 것”, “경의를 표한다.” 등 호응을 보였지만, 일부 네티즌은 “여성이 37세나 30세



라고 전하는 언론도 있는데 외모는 50대로 보인다.”, “본인들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논할 일이 아니다.” 등 찬반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처럼 나이 차가 많은 결혼은 위장 결혼 등으로 의심을 살 수 있지만, 이들 커플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의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신랑 측이 신부 측에 보낸 지원금이 500만 루피아(약 400달러)와 금반지뿐으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현재 신랑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